

# LOCAL

2025년 4월 23일 수요일

## 화순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꽃 피운다

### 신안, 흑산도 BI 공개 고래·철새·섬 형성화

신안군은 'K-관광섬 자산어보 흑산도' 브랜드 디자인을 개발해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브랜드 개발은 문화체육관광부 K-관광섬 자산어보 흑산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기획됐다.

K-관광섬 자산어보 흑산도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는 흑산도와 밀접한 동물 중 하나인 고래의 등처럼 생긴 섬들과 그 사이를 날아가는 철새의 형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흑산도를 연상케 하는 짙은 자연의 색을 사용했다.

'K-관광섬 자산어보 흑산도'는 이번 개발한 브랜드 디자인을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예정이다.

엽서, 로고, 시그니처 등으로 활용하고 흑산도의 역사와 장소성을 지닌 고래, 흥어, 흰꼬리수리의 캐릭터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할 계획이다.

신안-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 여수 '착한 물가 도시' 조성 물가안정 전담팀 회의 진행

여수시는 최근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2025년 숙박·음식업소 물가안정 전담팀(TF)'의 부서 간 협력회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6여수세계박람회와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착한 물가 도시'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외식비 및 숙박요금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부서별 물가안정 추진사항과 주요 정책 등 물가안정화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

앞서 시는 올해 공공요금을 전면 동결했으며, '바가지요금 근절 민·관합동 캠페인'과 '가격표시제 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음식점업 소상공인 공공요금 지원사업 추진으로 30만원씩 2046개소에 지원했다. 특히 상반기 내 착한가격업소를 127개소까지 확대 지정, 업소당 최대 95만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최정기 부시장은 "일부 부당요금 및 불친절 업소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는 등 실효성 있는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

### 파크골프 교육·원에 심리치료 등 주민에 호응 찾아가는 배후마을 교육·반찬 서비스도 '인기'

화순읍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22일 화순군 등에 따르면 화순읍은 파크골프 교육, 원예심리치료·목공예 프로그램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며, 교육·문화·복지·여가가 어우러진 마을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을 넘어 주민이 함께 배우고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파크골프 교육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세대 간 소통을 자연스럽게 유도한다는 점에서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실내 이론 교육에서 필드 체험까지 이어지는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함께 경기 규칙 및 매너 교육도 병행돼 참여자들로부터 건강과 예절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원예심리치료 프로그램은 식물에 가꾸며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힐링 교육의



화순읍은 최근 파크골프 교육, 원예심리치료·목공예 프로그램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화순읍은 최근 파크골프 교육, 원예심리치료·목공예 프로그램 등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통해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로서, 정신 건강이 중요한 요즘 시대에 더욱 주목받고 있다. 특히 중·장년층의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회복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함께 흙배이키고 목공예프로그램도 다양성 면에서 눈에 띈다. 경력단절 여성은 물론, 창업을 준비하

는 주민, 퇴직 후 새로운 취미를 찾는 어르신 등 폭넓은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생활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익히는 것은 물론, 자존감을 회복하고 새로운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고 있다.

또 배후마을 교육은 교육 인프라에서 소외되기 쉬운 외곽 주민에게 직접 찾아

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배움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어르신 안부를 묻는 도시락 반찬 배달 서비스는 단순한 식사지원을 넘어 정기적인 안부 확인과 정서적 교류를 통해 지역 돌봄 체계의 모범사례로 자리 잡고 있다.

이준재 화순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무장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주체가 되는 자립형 지역 공동체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돼 더 많은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함께 살아가는 마을'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담양군은 송간 투양무늬면 주한 라오스 대사 일행이 담양을 방문해 양 지역 간 우호 증진과 협력을 강화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 담양, 라오스와 계절근로자 우호협력 강화

#### 주한 라오스 대사 방문

담양군은 최근 송간 투양무늬면 주한 라오스 대사 일행이 담양을 방문해 양 지역 간 우호 증진과 협력을 강화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류는 계절근로자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의견을 교환하고, 지속적인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군과 라오스는 지난해 1월 계절근로자 파견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

한 이후 현재까지 107명의 라오스 근로자가 담양에 입국해 일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부터 담양군이 협약을 체결한 국가 중 가장 많은 인력을 공급받는 사례로, 지역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철원 군수는 "담양을 찾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근무를 마치고, 좋은 기억과 함께 돌아갈 수 있도록 근로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조성용 기자 jnwnews@

### 강진 프리미엄 쌀 브랜드 '봉황' 인기

#### 항칠나무 추출물 활용...기능성 성분 사포닌 함유

강진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최근 기능성 성분인 사포닌을 함유한 프리미엄 쌀 브랜드 '봉황'을 출시하며, 지역 농업과 건강 식문화에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프리미엄 쌀 브랜드 봉황은 인삼과 새싹삼 등 건강식품에 주로 발견되는 사포닌을 함유한 기능성 쌀로, 미호벼 품종을 기반으로 항칠나무 추출물 만든 친환경 자재를 벼 생육 중 3~4차례 살포해 생산된다.

쌀 1g당 34.9mg의 고품질 사포닌이 함유돼, 밥 한 공기(210g 기준)에 약 30mg의 사포닌을 섭취할 수 있다. 이는 6년간

인삼 1~2뿌리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봉황은 단순한 기능성 쌀을 넘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24년에는 32개 농가가 100ha에서 계약재배를 진행했다.

40kg당 8만3000원의 높은 가격으로 거래돼 일반 벼보다 2만원 가량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힘입어 올해는 50여농가, 200ha 규모로 재배 면적을 대폭 확대하며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군은 봉황쌀의 본격 유통을 위해 3월 말부터 2kg·4kg 소포장 제품을 선보이며, 초록민들레, 강진쌀판매 홈페이지, 네이버 쇼



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봉황쌀은 지역 농업과 기능성 농산물의 미래를 함께 담은 강진의 대표 브랜드로 성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환경·기능성 농산물의 지속적인 개발과 마케팅으로 강진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키워 가겠다"고 말했다. 강진=이진욱 기자 sa4332252@

### 장흥, '홍화1호'로 표고버섯산업 시장 확대

#### 최대 주산지 대표 품종 육성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원장 문정걸)가 자체 개발해 보급 중인 표고버섯 신품종 홍화1호가 농가와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22일 군에 따르면 홍화1호는 30~40년 전에 도입돼 국내 점유 중인 일본품종의 품질과 생산량 저하 문제를 해결하고 국산품종의 재배 확대를 위해 개발된 원목 재배용 표고버섯 신품종이다.

지난 2022년에 품종보호출원돼 올해까지 21개 농가에서 표고버섯 원목 8만 4000본이 재배되고 있다.

홍화1호는 육질이 단단해 맛과 향이 좋고, 색택이 밝아 품질도 우수해 재배자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종균 접종 3년차인 올해는 생산량도 일본품종보다 1.5배 이상 높아져 농가의 소득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장흥군버섯산업연구원은 홍화1호의 지속적인 재배 확대와 함께 일본품종과의 차별화된 육성을 위해 DNA 식별체계 개발, 유통시스템 확립, 정정순수도 국가통합브랜드 지정 등도 추진할 계획이다. 장흥=정영서 기자 jms050311@

## 화순 어린이 직업체험 테마파크

# 키즈라라

어린이들에게 호기심과 즐거움, 꿈 찾는 진로 체험!  
키즈라라에서 30여가지 직업 체험을 만나보세요!

30여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직업체험관**

꼬마허어로 슈퍼액과 함께 놀 수 있는

**영유아 체험관**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키즈라라 잔디광장**

**키즈라라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직업체험**

- 즐거운 삶의 문화를 창조하는 항공훈련센터·뷰티살롱 등
- 미디어로 소통하는 TV 방송국·1인 방송국 등
- 호기심을 갖고 끊임없이 탐구하는 공룡연구소·AI 로봇연구소 등
- 맛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만드는 쿠키·치즈공방·식품연구소 등
- 사회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서·경찰서 등

어린이 테마파크 **키즈라라**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온천1길 35 **T. 1600-7953**